



numbers
vol. 285

한국인의 결혼, 부모됨 그리고 가족의 삶
기혼자 4명 중 1명,
‘지난 1년간 이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정치 양극화 인식
- ② 젠더갈등 인식

2025. 4. 29.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기혼자 4명 중 1명, ‘지난 1년간 이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다’!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공동체이자, 평생의 울타리이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서울시의 '2024 서울가족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서울 시민의 가족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정책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고자 2018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조사 결과로,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넘버즈 285호>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해당 조사 중 결혼/부부, 부모, 가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현재 기혼자라면 결혼생활과 부모로서의 삶, 가족이 주는 의미와 만족도 등을 되돌아보며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가족서베이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20~64세(1960~2004년생) 서울시 거주자
표본 규모	총 1,574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방법	성/연령/거주권역별 인구 비례할당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법을 가정할 경우 $\pm 2.47\%$ (95% 신뢰구간)
조사 기간	2024년 7월 8일 ~7월 14일
조사 주체	서울시
조사 기관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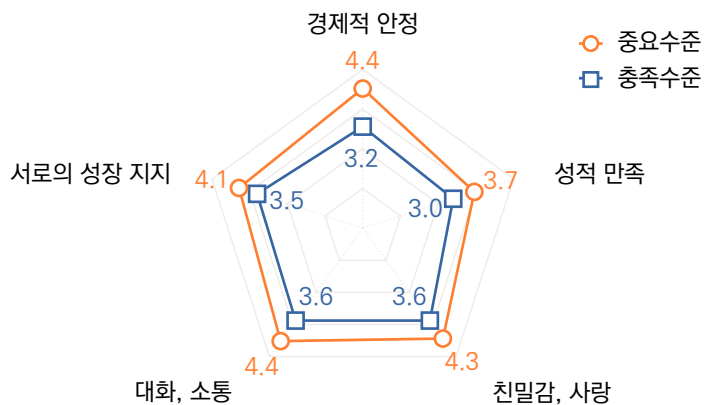
01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결혼생활의 중요 요소, 경제적 안정 못지않게 대화·소통 중요

-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생활의 5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결혼생활에서 각 영역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척도로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적 안정'(4.4점), '대화, 소통'(4.4점), '친밀감, 사랑'(4.3점)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실제 해당 영역들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에 비해 충족 수준이 낮았으며, 중요 수준과 충족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경제적 안정'이었다. 결혼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결혼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 및 충족 수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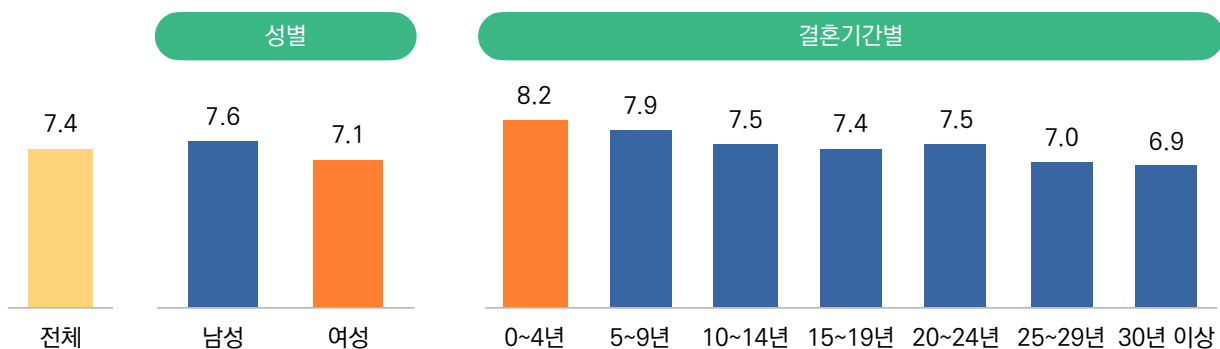


*5점 척도

결혼기간 길수록 '배우자 관계 행복도'는 낮아져!

- 기혼자에게 최근 1개월간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를 묻은 결과(1~10점 척도), 평균은 7.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성별로는 남성은 7.6점, 여성은 7.1점으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결혼기간별로 보면 '0~4년' 부부인 경우 8.2점인데 반해 '30년 이상' 부부는 6.9점으로 가장 낮아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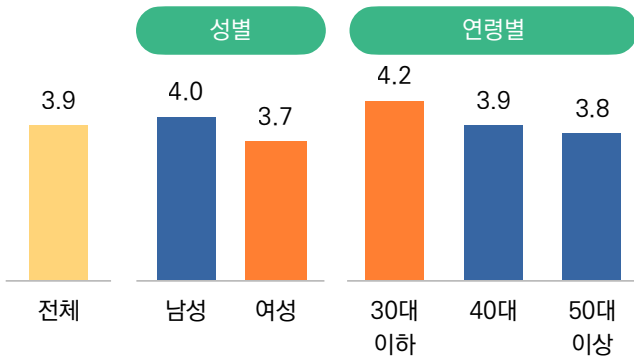


*10점 척도

기혼자 4명 중 1명, '지난 1년간 이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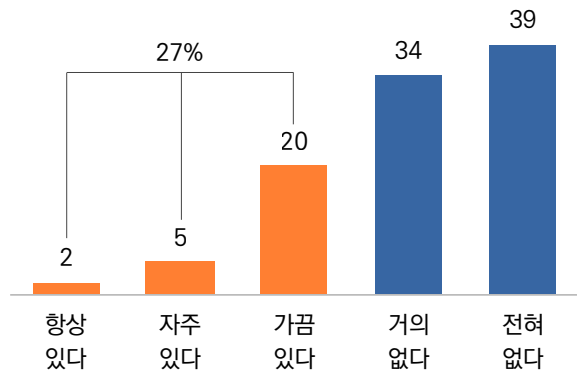
-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에게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평균 3.9점(5점 척도)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4.0점)과 '30대 이하 연령층'(4.2점)에서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한편 지난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가 '있다'고 응답해, 기혼자 4명 중 1명이 이혼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결혼하기 잘했다'고 생각함에 대한 동의 수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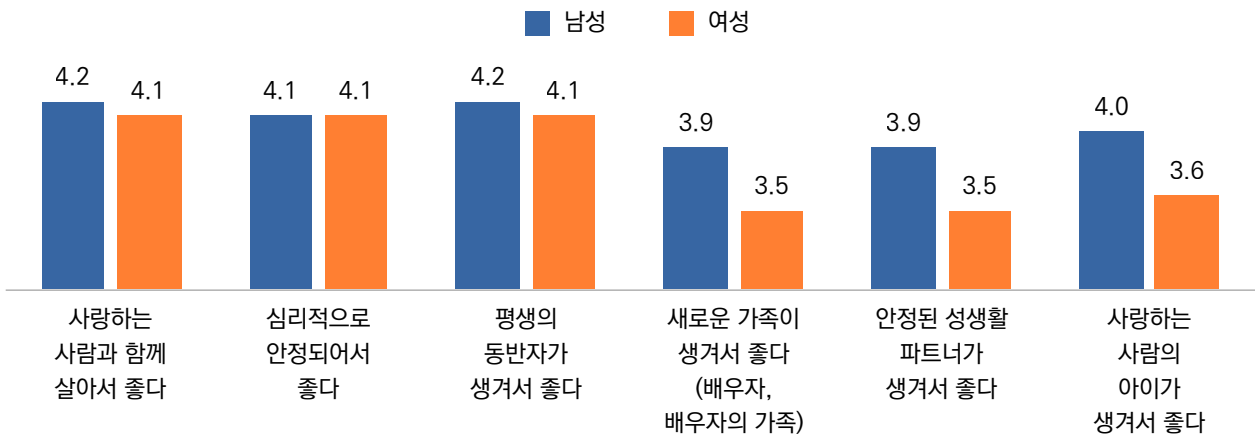
[그림] 이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다
(‘그렇다’ 비율,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



결혼의 이점,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

- 결혼의 이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 좋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좋다', '평생의 동반자가 생겨서 좋다'는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공감을 얻었다.
-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 이점에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좋다', '안정된 성생활 파트너가 생겨서 좋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생겨서 좋다'와 같은 항목에서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 주목된다.

[그림] 결혼에 따른 이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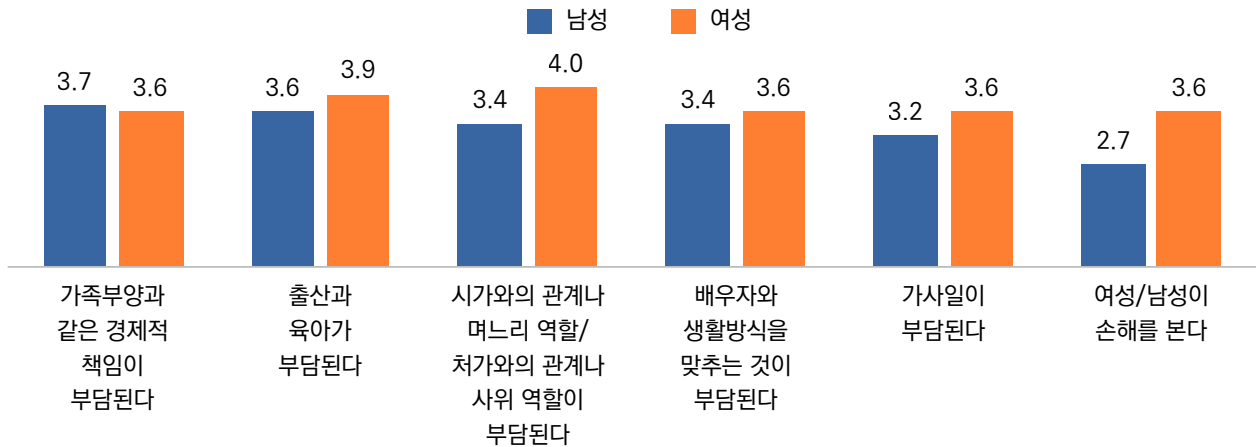


*5점 척도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크게 느껴

- 이번에는 결혼에 따르는 부담 항목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정도를 물었다. 그 결과, '가족부양과 같은 경제적 책임이 부담된다', '출산과 육아가 부담된다', '시가(처가)와의 관계나 며느리(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결혼하면 '결혼으로 인한 손해 인식', '배우자 부모 및 결혼으로 부여된 역할 부담', '가사일 부담'과 같은 성 역할 관련 항목에서의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부담 인식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결혼에 따른 부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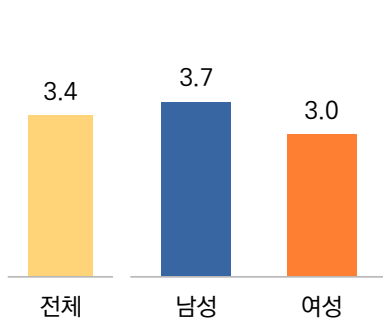
*5점 척도

02

[부모됨에 대한 인식] 무자녀자, 부모 되고 싶다, '여성'이 남성보다 덜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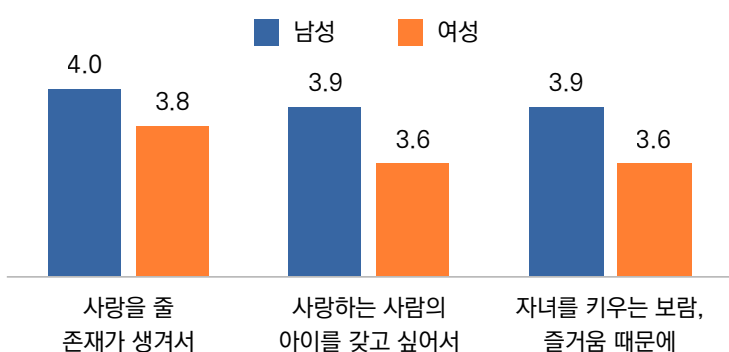
- 무자녀 20~40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부모가 될 의향을 묻은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3.0점, 남성 3.7점으로, 여성의 부모 될 의향이 남성보다 크게 낮았다.
- 부모가 될 의향이 3점 이상인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등의 응답이 상위에 올랐는데,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 (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성별, 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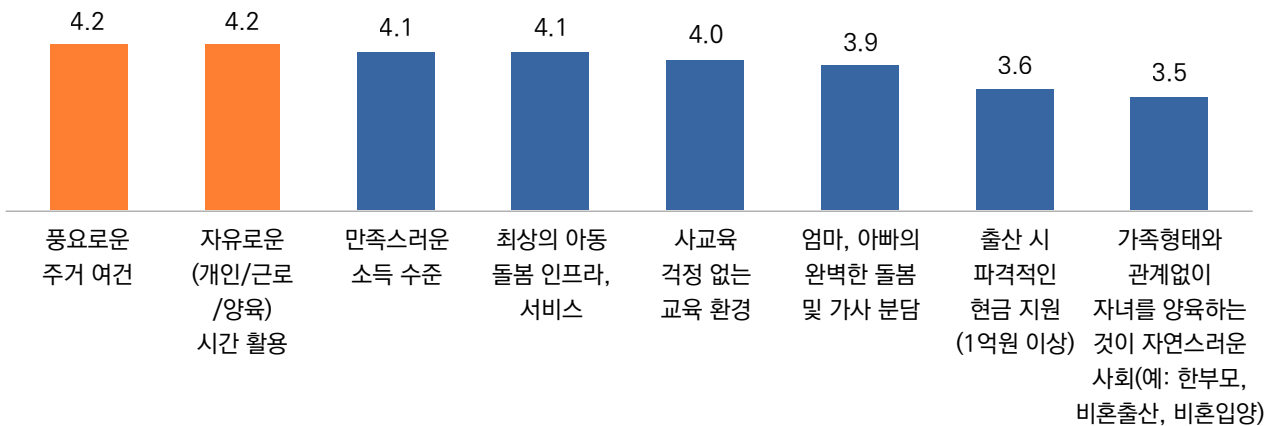
[그림] 부모됨 의향이 있는 이유* (부모됨 의향이 보통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상위 3개, 점)



‘시간 활용’과 ‘주거 안정’ 확보되면 아이 낳을 의향 있다

- 자녀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됐을 때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은지를 1~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자유로운 (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과 ‘풍요로운 주거 여건’이 각각 평균 4.2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어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 ‘최상의 아동 돌봄 인프라, 서비스’,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환경’도 평균 4.0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 결과는 개인 시간 확보, 안정적인 주거와 환경이 보장된다면, 출산 의향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됨 의향* (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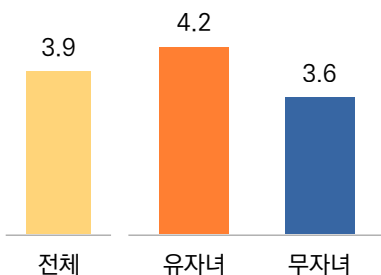
03

[부모됨의 경험과 감정]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게 더 많다’, 유자녀자가 무자녀자보다 더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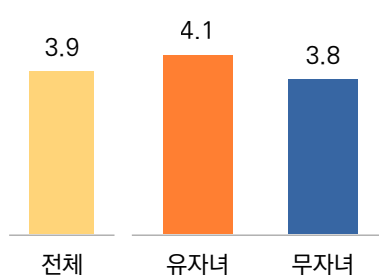
- 20~64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에 대한 동의 수준(1~5점 척도)을 조사한 결과, 평균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자녀 집단’(4.2점)은 ‘무자녀 집단’(3.6점)보다 뚜렷하게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 자녀 양육의 긍정적 경험이 실제 체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자녀는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한다’에 대해서도 ‘무자녀 집단’(3.8점)보다, ‘유자녀 집단’(4.1점)에서 동의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자녀 양육 경험이 부부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부모됨의 득: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 동의 수준* (자녀 유무별, 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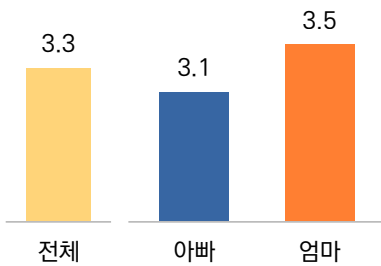
[그림] ‘자녀는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한다’ 동의 수준* (자녀 유무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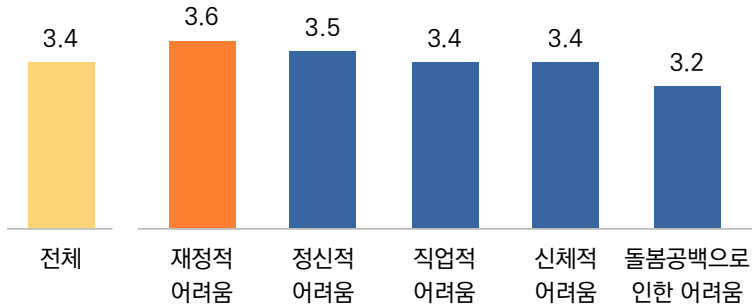
엄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아빠보다 더 크다!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1~5점 척도)은 평균 3.3점으로 보통을 다소 웃돌았다. 성별로는 엄마(3.5점)가 아빠(3.1점)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영역별로 평가(1~5점 척도)한 결과, 전체 평균은 3.4점이었고, 가장 높은 어려움을 느낀 항목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평균 3.6점이었다. 경제적 부담이 양육 스트레스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양육 스트레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부모 성별, 점)



[그림] 부모 역할의 어려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상위 5개, 점)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어려움이 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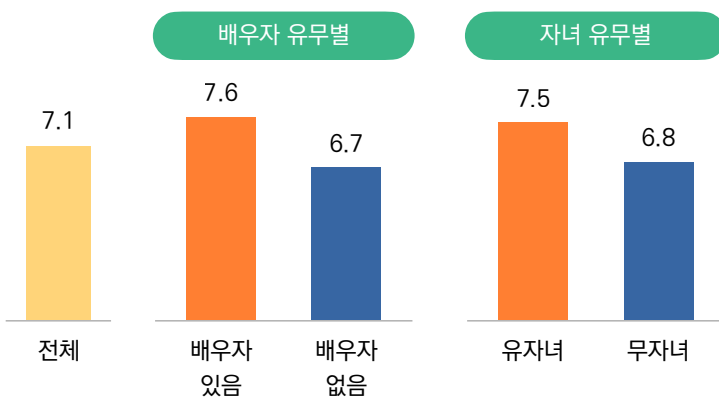
04

[가족 관계 만족도]

'배우자·자녀' 있는 경우, 가족 생활 행복도 더 높아!

- 최근 한 달간 가족 생활의 행복도를 10점 만점 척도로 묻은 결과, 평균은 7.1점으로 '약간 행복함' 수준이었다.
- 세부적으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집단'(7.6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6.7점)보다, '유자녀 집단'(7.5점)이 '무자녀 집단'(6.8점)보다 가족 생활이 행복하다는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가족 생활 행복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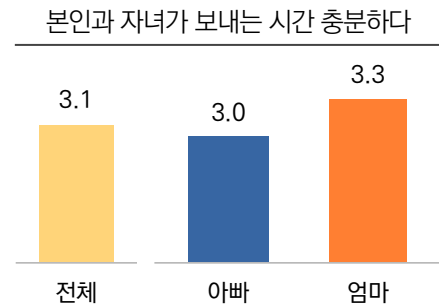


*10점 척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 모두 충분하다고 못 느껴!

-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 본인과 자녀가 공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평균 3.1점(1~5점 척도)으로 보통(3점) 수준으로 인식했으며, 여성(3.3점)이 남성(3.0점)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더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부모-자녀 공유시간 충분성* (자녀가 있는 응답자, 부모 성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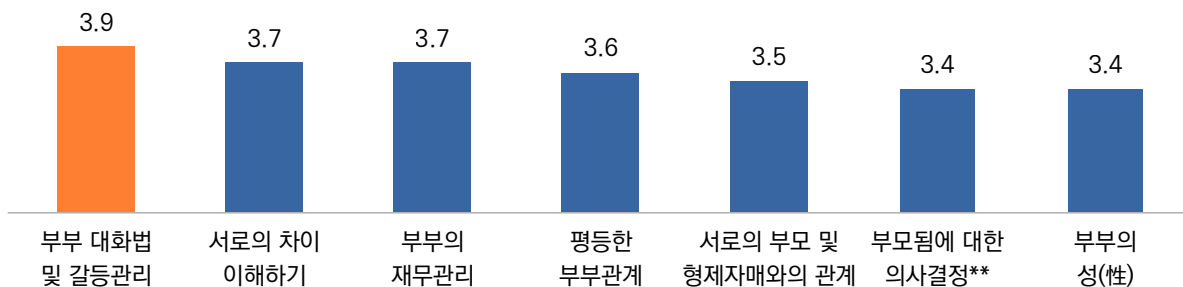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05

[가족 관련 교육 욕구] 가장 원하는 부부 교육, '대화과 갈등관리'!

-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에게 7가지 주제의 부부 교육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교육 받고 싶은지 물은 결과(1~5점 척도), '부부 대화법 및 갈등관리'가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부부의 재무관리'가 각각 3.7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부부의 소통과 갈등관리 방법,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게 나타난 만큼, 역량이 되는 교회라면 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부부 교육 프로그램 신설해 보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부부 교육 주제별 요구도*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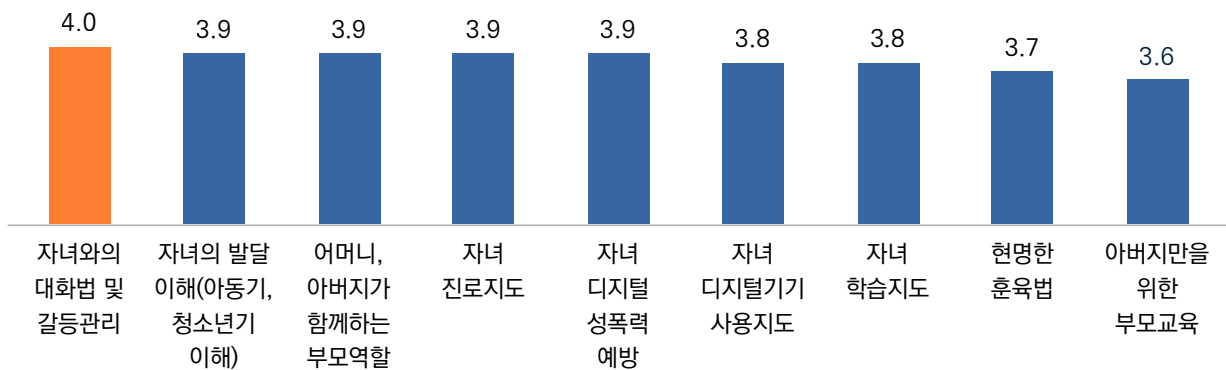
*5점 척도

**해당 항목은 자녀가 없는 유배우자 대상

가장 필요한 부모 교육 주제, ‘자녀와의 대화법 및 갈등관리’!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원하는 부모 교육은 무엇일까? 9가지 부모 교육 주제에 대해 교육받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5점 척도), ‘자녀와의 대화법 및 갈등관리’가 평균 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녀의 발달 이해’, ‘자녀 진로지도’, ‘자녀 디지털 성폭력 예방’,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부모역할’이 모두 3.9점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뿐 아니라, 진로·디지털 환경·성폭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부모 교육 주제별 요구도*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점)



*5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결혼기간 길수록 ‘배우자 관계 행복도’는 낮아져!

- 최근 1개월간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를 묻은 결과(1~10점 척도), 평균은 7.4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결혼기간별로는 ‘0~4년’ 부부인 경우 8.2점인데 반해 ‘30년 이상’ 부부는 6.9점으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기혼자,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이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다’!

- 지난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경험률은 27%로, 기혼자 4명 중 1명이 이혼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 ‘배우자·자녀’ 있는 경우, 가족 생활 행복도 더 높아!

- 최근 한 달간 가족 생활의 행복도를 10점 만점 척도로 묻은 결과, 평균은 7.1점으로 ‘약간 행복함’ 수준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집단’(7.6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6.7점)보다, ‘유자녀 집단’(7.5점)이 ‘무자녀 집단’(6.8점)보다 가족 생활이 행복하다는 평가가 더 높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결혼, 그 아름다운 예배 (복있는사람, 크리스토퍼 애쉬 저)

관련 성경 구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33)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혼자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결혼생활이 항상 행복하거나 쉽지 않은 점들을 보여준다.

특히 결혼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대화·소통을 높게 꼽은 점과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부교육/자녀교육으로 대화법 및 갈등관리 교육을 선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부부 관계 연구로 유명한 심리학자 John Gottman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 만족도는 경제력이나 자녀 유무보다 대화·소통 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관계에서 대화법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난 대신 I-메시지를 사용하기(예: "당신이 약속을 잊었을 때, 나는 서운했어."), 하루 10~15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감사 표현을 생활화하는 것 등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부부간 소통을 회복하고,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개인적 부부 소통 노력을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의 부부 소그룹을 활용하여 각 부부간 대화법을 시연하고, 결혼생활 선배 부부 등이 이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부부상담/소통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혼자 대상 부부 관련 세미나,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실습하고, 표현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부담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소그룹임을 기억하자!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정치 양극화 인식
2. 젠더갈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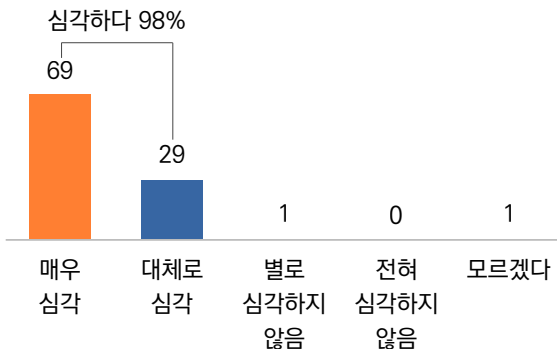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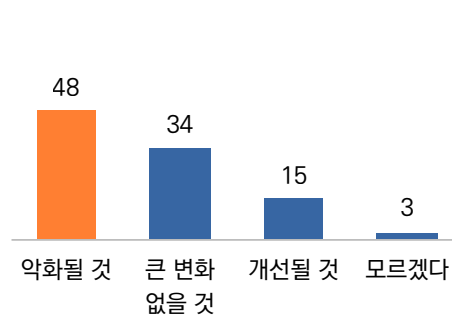
[정치 양극화 인식] 국민 98%, 우리 사회 정치 양극화 '심각'!

- 최근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극단의 정치, 중도의 선택'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우리 사회를 다루었는데 그중 '정치 양극화 인식' 조사 내용 일부를 살펴본다.
- 현재 우리 정치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매우 심각'이 69%에 달했고, '대체로 심각'이 29%로 무려 국민의 98%가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또 앞으로 정치 양극화 전망에 관해서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48%)에 달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풀어지지 않는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림] 정치 양극화 인식 (%)



[그림] 정치 양극화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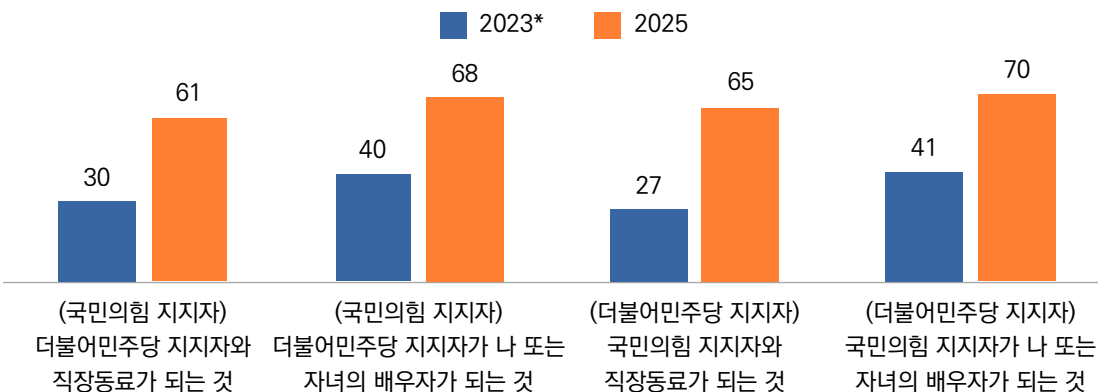


※출처 : KBS-한국리서치, KBS 정치 양극화-중도층 조사, 2025.04.(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웹조사, 2025.04.04.~04.06.)

국민 70%,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와 지지정당 다르면 불편하다!

-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현재 서로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한국의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관계를 제시하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확인했다.
- 그 결과,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6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65%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보다 가까운 관계인 '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는 10명 중 7명이 '불편하다'고 응답해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더 심했다.
- 2023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관해 양당 지지자 모두 '불편하다' 비율이 크게 상승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정당 지지자와의 관계 불편도 ('매우+대체로 불편하다' 비율**, %)



※출처 : KBS뉴스, [창+] 정치색 따르면 동료로도 가족으로도 싫다?, 2025.04.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1726>)

*2023년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202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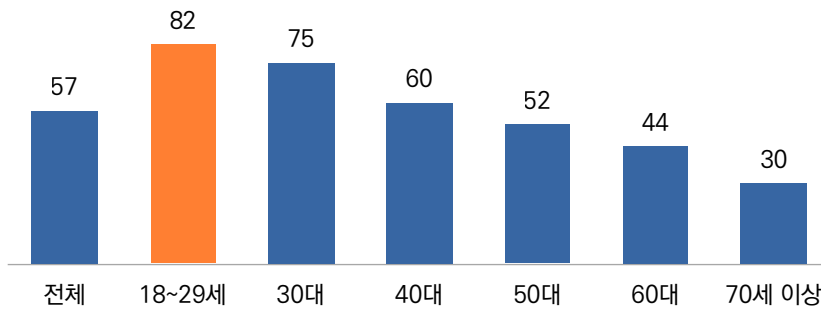
**4점 척도



[젠더갈등 인식] 젊은 세대일수록 젠더갈등 더 심각하다고 느껴!

- 최근 발표된 ‘2025 젠더인식조사’(한국리서치)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 젠더갈등 문제를 짚어본다.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7%로 국민 10명 중 6명 정도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82%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젠더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젠더갈등 심각성 (연령별, ‘매우+대체로 심각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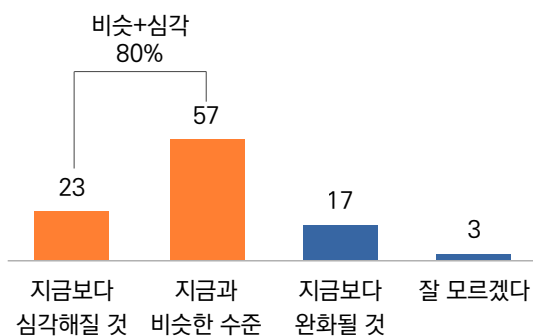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젠더인식조사] 우리 사회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과 성차별 경험, 2025.04.23.(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2.21.~02.24.)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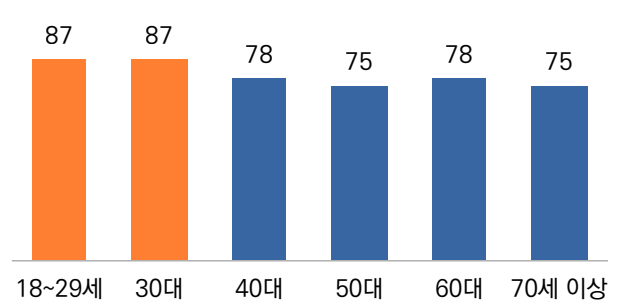
2030세대 대다수, 향후 젠더갈등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해질’ 것!

- 앞서 우리 국민들은 현재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더 높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57%,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23%로 우리 국민 80%(비슷+심각)는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이 역시 2030세대 젊은층에서 보다 부정적 예상이 강했다.

[그림] 젠더갈등 전망 (%)



[그림] 연령별 젠더갈등 전망 (‘비슷+심각’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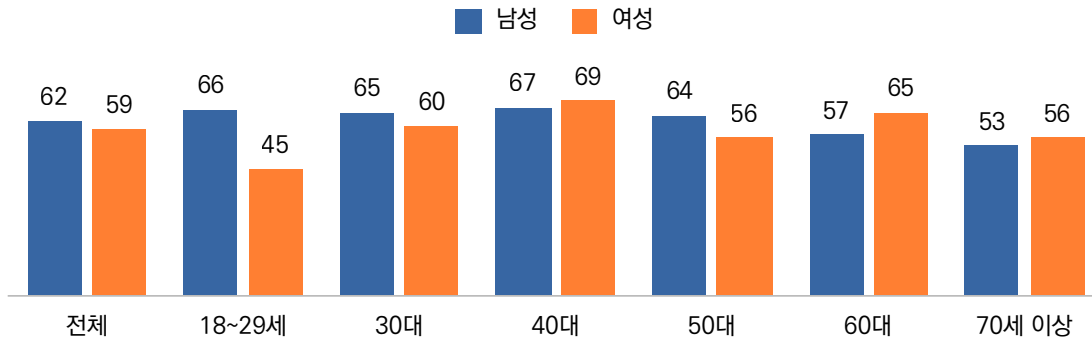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젠더인식조사] 우리 사회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과 성차별 경험, 2025.04.23.(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2.21.~02.24.)

20대 여성, 또래 남성과의 소통에 어려움 있어!

- 이번에는 남녀 간 소통 부분을 살펴본다. 동년배 이성과의 소통이 어떠한지를 묻은 결과, 20대의 경우, 남성은 동년배 여성과 소통이 잘 된다고 평가한 비율이 66%인 데 반해 여성은 절반에 못 미치는 45%가 동의해(‘잘 되지 않는다’ 47%) 또래 남성과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타 연령대 여성과 비교해봐도 또래 이성과의 소통이 잘 된다는 비율이 가장 저조한 집단이 20대 여성이었다.

[그림] ‘동년배 이성과 소통이 잘 된다’ 비율 (연령별, ‘매우+약간 잘 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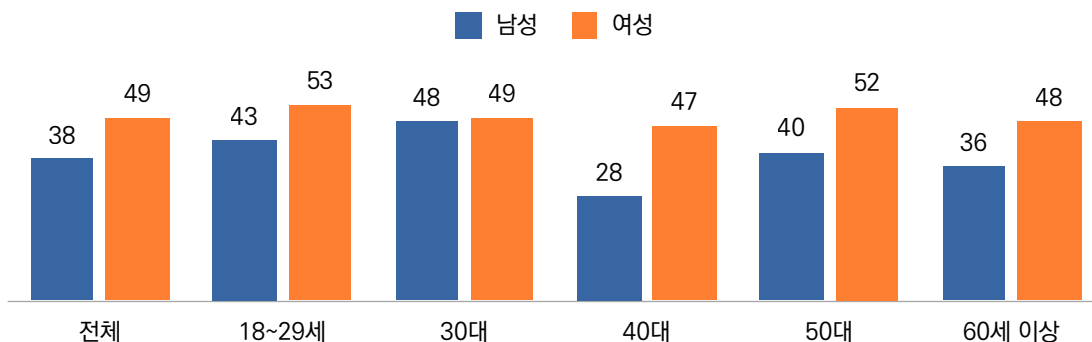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젠더인식조사] 우리 사회의 성 고정관련 인식과 소통 평가, 2025.04.1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2.21.~02.24.)

*4점 척도

여성 절반, ‘윗세대 남성과의 소통’ 어렵다!

- ‘윗세대 남성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여성의 절반가량이 ‘윗세대 남성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평가했고, 특히 ‘18~29세 여성’(53%)에서 윗세대 남성과의 소통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30대’(48%)에서 윗세대 남성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교회 목사님과 여성 성도/전도사 간의 소통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젊은 여성 세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 간 소통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윗세대 남성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 (연령별, ‘전혀+별로 잘 되지 않는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젠더인식조사] 우리 사회의 성 고정관련 인식과 소통 평가, 2025.04.1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2.21.~02.24.)

*4점 척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21호 \(2025년 4월 4주\)](#)

- 장래 정치 지도자, 대선 결과 기대,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52호 \(2025년 4월 4주\)](#)

- 투표 참여 의향, 차기 대통령 적합도, 대선후보 호감도 등

사회 일반

[출산 망설이는 이유?...한국 성인 85% “○○ 줄어든다” 인식](#)

동아일보_2025.4.27.

[2월 출생아 2만35명... 11년 만에 증가세](#)

국민일보_2025.4.24.

[‘살 날 긴데...’ 돈 안 쓰는 50~60대 소비하락 주도](#)

국민일보_2025.4.24.

[3050 남성들 위험하다...밥벌이의 버거움, 자살 10년래 최대](#)

중앙일보_2025.4.28.

[여성 36% "한 번 이상 폭력 피해"...절반 이상 "사회 안전하지 않아"](#)

중앙일보_2025.4.24.

["주 1회 이상 먹는다" 50.5%...한국인의 일상식이 된 버거](#)

중앙일보_2025.4.25.

[“몇천원으로 소확행 누려” 랜덤 뽑기방 복적](#)

중앙일보_2025.4.26.

[“함께 걷고 대화하고 위로 받는다”... 일상 곳곳 스며든 로봇](#)

동아일보_2025.4.26.

[BK21 참여 외국인 대학원생 중 '한국 살고 싶다' 27% 그쳐](#)

연합뉴스_2025.4.27.

[2025 사회적 다양성 및 성\(姓\) 정체성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4.24.

아동 · 청소년 · 청년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심각...최근 5년간 3배 급증](#)

KBS뉴스_2025.4.25.

노인

[밥 주고, 놀아주고, 돌봐주고...민간·공공 실버타운 가봤더니 \[효자가 된 집\]](#)

한국일보_2025.4.26.

[“하루 종일 유튜브만”... 스마트폰에 빠진 노인, ‘중독’ 더 쉽다는데?](#)

조선일보_2025.4.2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기획\] 직업관과 근로일 단축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4.22.](#)

[“진짜 내일 때려치고 만다”...이직 원하는 MZ공무원들, 선배들보다 많다](#)

[매일경제_2025.4.27.](#)

[나라는 힘든데 홀로 배불린 금융지주들... 사상 최대 실적](#)

[국민일보_2025.4.28.](#)

[‘신용불량’ 개인사업자 1년새 29% 급증... 대출자 절반 다중채무](#)

[동아일보_2025.4.28.](#)

건강

[“폭삭 삭았수다” 스스로 하는 ‘얼평’ ‘몸평’ 멈춰야 하는 이유](#)

[동아일보_2025.4.27.](#)

기독교 · 종교

[장애인 목회자 55% “교단·교회서 부당한 대우 받았다”](#)

[국민일보_2025.4.24.](#)

[언더우드 4대손의 쓴소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 모범 생활해야"](#)

[연합뉴스_2025.4.19.](#)

[올해 목사 고시 응시자 1019명 ... 논술에 ‘챗GPT’ 포함](#)

[한국기독교공보_2025.4.18.](#)

[\[\[특별기획\] 신대원생 의식과 사역에 관한 설문조사 ②\], \(기독교연합신문\)](#)

[신대원생 10명 중 5명 ‘서울과 수도권’ 사역 원해... 희망 사례비는? _2025.4.25.](#)

[신대원생 ‘교육부서’ 사역 가장 많고 ‘2~5개’까지 담당해 _2025.4.25.](#)

[평균 사례비 122만원, 절반은 장학금도 받아 _2025.4.25.](#)

[신대원생 절반 “성경 교육 더 강화되어야 한다” _2025.4.25.](#)

[신대원 교수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성경지식과 영성’ _2025.4.25.](#)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신촌교회(담임목사 이하준), 신동탄지구촌교회(담임목사 박춘광)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체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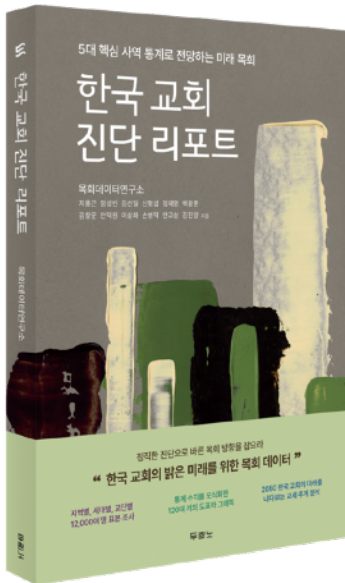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연구소 소식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큐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연구소 소식

다음 주 5월 6일(화)에는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휴간합니다.
<넘버즈 286호>는 5월 13일(화)에 발간 예정입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